

산림은 물을 저장하는 거대한 스펀지

-수질개선 능력도 뛰어나-

산림청 임업연구원은 산림의 수질개선능력과 우리나라 산림의 수종별 물저장능력 및 수원함양기능을 증진시키는 산림수종을 제시했다.

우리나라의 연간 강수량은 1,267억톤으로 그 중 20%에 불과한 249억톤이 산림과 토양에 저장되었다가 사용되고 1,018억톤은 바로 흘러 버리고 만다.

현재 우리나라 산림의 물저장능력은 180억톤(소양강댐의 10배)으로 전체 물저장량의 72%를 산림이 저장하고 있는 셈이 된다.

우리나라 평균 강우산도는 5.3Ph로 2급수 수준이나 산림을 통과하면 각종오염물질이 여과되어 산도는 7.1Ph로서, 1급수로 수질이 크게 개선된다고 밝혔다.

산림의 물저장능력을 늘리고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상수원지역 산림의 10%이상 벌채는 지양하고 계류주변은 최소한 30m 이

상 수림대를 조성하며, 수원함양기능이 높은 참나무류, 물푸레나무, 자작나무, 들메나무, 서어나무 등 활엽수위주로 조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
또한 마을주변의 오염된 계류의 수질을 정화하기 위하여는 계류주변의 폐경지 및 유휴지에 은행나무, 낙우송, 메타세콰이아, 버드나무등 내습성이 강한 수종을 심으면 나무의 뿌리가 계류에 오염물질을 흡수하여 질소의 농도를 약 10분의 1 (10~15 ppm → 1~2 ppm)로 감소시킨다고 밝혔다.

수종별 물저장능력은 활엽수가 가장 높아 ha당 4,999톤이며, 침엽수는 4,353톤으로 민둥산에 비하여 약 7~8배 가량 많으며, 나무나이별로 보면 20년생은 ha당 2,078톤을 저장하며 40년생은 2,623톤을 저장한다고 한다.

올 임업자금 950억원 확대지원키로

산림청에서는 산지자원화 촉진과 산주소득증대를 위해 올해에 950억원의 산림개발자금을 융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① 그중 산림개발기금 200억원

②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자금 349억원

③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401억원인데 그 내역은 다음 별표와 같다.